

가람문고 전사본의 현황과 형성 과정*

황재문**

- I. 머리말
- II. 가람문고 전사본의 현황
- III. 가람문고 전사본의 형성 과정
- IV. 맺음말

<국문초록>

가람 이병기는 학자이자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근대 초기의 대표적인 장서가이기도 하다. 특히 전문적인 서적상이 아닌 학자로서는 손꼽히는 장서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장서는 오늘날 서울대학교에 기증되어 가람문고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전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전사본 작성은 당시 학자가 문헌 자료를 얻는 유력한 방법이었는데,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중요한 이본’의 원천 역할도 하고 있다. 가람문고의 전사본은 『가람일기』와 『서목』, 그리고 현존하는 고문헌의 상호 비교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데, 실제 검토해 보면 60종 118.5책의 전사본이 가람문고에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0종의 전사본이 형성된 시기를 검토한 결과 1932~1934년에 32종에 이르는 전사본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이병기가 학문적 교류의 폭을 넓히던 시점에 해당한다. 경성제국대학 등에 소속된 일본인 학자들과 학문적 관계를 맺으면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특별열람권을 얻었고,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대학 중심의 학계에도 인연을 맺었다. 특히 1933년에는 ‘문헌 수집’을 주요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C2A02046100).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사업으로 내세운 조선문흥회를 창립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했는데, 1932~1934년에 작성된 전사본의 수가 많아진 것은 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우연히 확보한 문헌을 스스로 필사했던 앞선 시기나 전사본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복사나 영인본이 일반화되는 다음 시기의 상황과는 구별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핵심어: 이병기, 가람문고, 『가람일기』, 『서목』, 전사본

1. 머리말

가람 이병기(李秉岐, 1891~1968)는 학자이자 시인으로 알려졌지만, 근대 초기의 대표적인 장서가이기도 했다. “이 땅의 장서가로 첫손을 꼽히셨다”라는 제자의 발언은 다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¹⁾ 적어도 전문적인 서적상이 아닌 학자 가운데서는 손꼽히는 장서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 평생 모은 장서들은 1963년에 서울대학교에 기증되어 ‘가람문고’로 관리되며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고문헌을 수집하던 이병기가 가장 원했던 바일 것이다.

이병기의 장서, 그리고 현재의 가람문고에는 『용비어천가』 초간본(가람古貴811.51-G995y)을 비롯한 다수의 귀중본이 포함되어 있다.³⁾ 이병기는 장서가 집안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고문헌을 손수 하나씩 모아야 했는데, 고문헌을 감식하는 안목을 자산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헌을 수집했다. 그러한 수집의 과정은 『가람일기』에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⁴⁾ 이를 통

1) 정병욱, 「책가위 안철에 적는 글」,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3면.

2) 『동아일보』에서는 195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서재우목(書齋寓目) 장서가역방기(藏書家歷訪記)’라는 연재 기사를 마련했는데, 가람의 ‘매화옥서실(梅花屋書室)’ 방문기를 첫 번째로 실었다. 가람 이후로는 박종화, 이희승, 김상기, 최현배, 김원룡, 이병도, 황의돈, 윤일선, 안인식, 김두중, 양주동, 김용진의 서재를 방문한 기사를 실었다.

3) 일기에는 1935년에 황의돈으로부터 20원에 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일화는 『동아일보』 1962년 7월 16일의 기사인 「진귀서(珍貴書)와 이병기 박사」에 전하는데, ‘친구’ 즉 황의돈은 표지의 기록으로 인해 중간본으로 착각하여 이 책을 팔았다고 한다.

4) 『가람일기』는 두 차례 간행되었다. 1976년에 신구문화사에서 2권의 ‘문고본’(정병욱, 최승범

해 근대 초기의 고문헌과 관련된 문화사에 접근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장서가 또는 고문헌 수집가로서의 이병기와 그의 장서에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⁵⁾ 그나마도 원본 전체를 수록한 전집본 『가람일기』 간행 이전의 성과가 대부분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람문고 자체가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람일기』를 살펴보면, ‘벗겨 쓰기’ 즉 고문헌 전사(傳寫)를 통해 새로운 이본을 만드는 과정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찾아낼 수 있다. 학자가 가격이나 희소성으로 인해 구매하기 어려운 고문헌을 얻는 유력한 방법은 당시로서는 전사본 작성이었을 것이니, 『가람일기』에 전사 관련 기록이 다수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가람문고의 전사본 중에는 희귀본이 적지 않고 이본을 대비하며 교준한 흔적이 다수 남아 있으니,⁶⁾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사본들은 초기 국문학 연구사의 중요한 자료이자 결과물이기도 하니, 국문학 연구사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람문고의 전사본에 주목한 사례로는 과거 사자관(寫字官)의 전통이나 당시 사자생(寫字生)의 관습에 주목하면서 가람문고 고문헌 필사자를 검토

편, 『가람일기』이 간행되었으며, 2019~2021년에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5권의 ‘전집본’(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위원회 편, 『가람 이병기 전집』 6~10권)이 간행되었다. 전집본에서는 현전하는 원본 일기 전체를 활자화하였는데, 이미 유실된 제15권(1921.5.15.~1921.12.31.)과 제50권(1958.2.7.~1964.9.30.)은 문고본의 내용을 옮겼다. 전집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이경애,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국어문학회, 2017 참조. 문고본과 전집본의 차이에 대해서는 황재문, 『이병기의 수학과 학술 활동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41, 진단학회, 2023, 131~137면 참조.

- 5)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이민영, 『서지학자로서의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발표논문집』, 2013; 이민희, 『가람 이병기 소장 도서목록 『서목』 연구』, 『영남학』 6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8; 이경애, 『『가람문고』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한 가람 이병기 학문의 의의: 규장각 소장 ‘가람문고’를 중심으로』, 『규장각』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이민희,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 전집본 『가람일기』(전5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9, 한국문학회, 2025.
- 6) 전사본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천혜봉, 『한국 서지학』(개정증보 2판), 민음사, 2006, 128~133면 참조. 천혜봉은 전사본이 중요시되는 경우 일괄 가치를 거론했는데, 가람문고의 전사본 가운데 ‘(2) 간인본을 잃은 전사본으로 내용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와 ‘(5) 저명한 학자의 수교(手校)가 가해진 전사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⁷⁾ 윤지아는 『가람일기』에 나타난 필사의 현황을 정리하여 ‘45종의 필사 문헌과 18명의 필사자’라는 통계를 제시하고,⁸⁾ 1932~1934년 또는 1932~1938년에 특히 왕성한 필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에 이병기가 휘문고보 교사로 재직하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으며 능력 있는 필사자를 구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문고본 『가람일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중요한 이유이지만, 전사본 또는 발췌본의 소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⁹⁾

이에 본고에서는 전집본 『가람일기』와 함께 1963년 기증을 앞두고 작성한 『서목』을 활용하면서 가람문고 전사본의 실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¹⁰⁾ 서지 목록과 일기 기록을 통해 ‘가람문고’에 포함된 전사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사의 과정을 가능한 한 재구성할 것이다.

II. 가람문고 전사본의 현황

‘가람문고’에 포함된 문헌의 전사본 여부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지에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병기의 기증 도서로 이뤄진 ‘가람문고’

7) 윤지아,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문헌 필사와 필사자의 존재 양상 연구』, 『고전과 해석』 24,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8) 위의 논문, 60~61면. 단 이 통계는 전사본 작성에 이르지 못한 발췌의 사례까지 포함하여 ‘필사’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므로, ‘전사본’의 통계와는 조금 다르다.

9) 문고본 『가람일기』는 핵심적인 사건을 선별하여 수록했으나 반복되는 기록, 예컨대 같은 인물을 방문한 기록 등은 생략하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독자는 언급된 인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1956년에 『산림경제지』의 『상화병 제조법』을 초(抄)한 일을 두고 “서울대 식물학과 교수였던 운초 정영호”를 방문했다가 한 일로 해석한 사례(위의 논문, 63면)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집본을 읽게 되면 ‘운초’가 이병기와 오랜 교유를 이어왔던 도서관 사서 운초(雲樵) 장지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 들르면 항상 장지태를 방문했던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화병 제조법』은 열람하며 간단히 메모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니, 필사 또는 전사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중앙도서관에서는 ‘가람문고’에 포함된 고문헌 대부분의 원문 이미지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사본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10) 『서목』의 개요와 의의에 대해서는 이민희, 『가람 이병기 소장 도서목록 『서목』 연구』 참고. 본고에서는 『가람 이병기 전집』 23권(2023)에 수록된 『서목』을 자료로 활용한다.

의 서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때로 필사 연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후사본’ 여부를 표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전사본’은 그 문헌을 만든 내력을 확인해야 판정할 수 있으니, 서지 작성 과정에서 전사본 여부를 판정하여 표기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전사본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문헌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먼저 점검 대상이 되는 문헌을 확정해야 할 것인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서목』이다.¹¹⁾ 『서목』을 작성한 1963년의 일기 원본, 즉 제50권은 유실되었지만, 문고본에 실렸던 일기를 통해서도 그 작성 과정은 대체로 짐작해볼 수 있다. 1962년 12월 29일에 이태극, 김성배, 남광우, 김동욱이 방문하여 도서 기증을 논의하니, 이들의 논의에 따라 기증 도서관 등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1963년 1월 16일, 2월 5일, 6일에 “도서의 서역(書役)”을 하는데, 이날 민제, 최승범이 방문한다. 유실된 일기 원본에는 다른 날에도 민제와 최승범의 방문과 서역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들의 ‘서역’의 실무를 맡았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3월 5일에 귀본(貴本)과 희본(稀本)을 선정하고, 7일에 귀본을 본다. 이때 김동욱, 남광우, 성낙훈, 김상기, 정원택이 방문하니, 귀중본과 희귀본의 선정에 이들의 의견 반영되었을 법도 하다. 3월 10일에는 민제가 ‘도서 목록’을 써 오고, 16일에 중희가 서울로 책을 옮기고 17일에 이병기가 이성의, 민제, 아들 중희와 함께 도서 감정(점검)을 한다. 4월과 5월 전반부의 일기가 없기는 하지만, 이 기록들만으로 보자면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도서 목록’ 즉 『서목』이 완성되었던 셈이 된다.

『서목』에서는 ‘고서적 서목(귀중본/희귀본), 보통본 서목(경부/사부/자부/집부), 잡서답본류부, 중화민국 고서적부, 양장책부, 고대잡지부’로 나누어 서지를 작성하였는데,¹²⁾ 이처럼 전통적인 사부분류(四部分類)를 부분적으

11) 1966년에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작성한 『일사·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은 더 상세한 서지를 수록했지만, ‘고서’에 해당하는 “707부 1,606책”만을 다룬 것이어서 주된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20세기에 필사되는 ‘전사본’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목』에서 정리한 문헌의 수인 “1,441종 4,146책”(이민회, 『가람 이병기 소장 도서목록 『서목』 연구, 276~277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2) 이민회, 『가람 이병기 소장 도서목록 『서목』 연구, 280~282면에서는 간행연대별 비율과 유형별 비율을 정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임란 후~개항(44%)과 개항 후~1950년대(43.2%), 그리고 보통본 자부(27.69%)와 고대잡지부(27.83%)의 비율이 높다. 다만 『서목』에

로 적용한 도서 분류법을 사용한 것은 고문헌과 현대 문헌을 함께 수록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짧은 기간에 작성했기 때문인지 개별 문헌의 분류가 어색하거나 판본 등의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전사본’은 대체로 고문헌 및 영인본을 정리한 ‘고서적 서목’과 ‘보통본 서목’에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서목』의 ‘고서적 서목’과 ‘보통본 서목’에서 전사본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기증 이전에 작성한 『서목』에는 당연하게도 도서관에서 붙인 문헌별 ‘청구기호’가 없는데, 이 때문에 원본 대조를 위해서는 중앙도서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장서를 모두 검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토해 보면 청구기호를 가려내기 어려운 문헌도 있으니,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목』을 통해 가람문고를 완전히 재구하기는 어려운 셈이기도 하다.

한편 『서목』은 어디까지나 기증 도서의 목록이며, 따라서 이병기의 장서 목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람일기』에는 1963년 6월 7일에 기증 도서를 실어 보냈다고 기록했는데, 그 이후인 6월 13일에 김창집의 『연행일기』, 서유문의 『무오연행』, 『의유당관북유람일기』를 싣는 장면이 보이며 6월 25일에는 『금보(琴譜)』를 가지고 이성 의와 성경린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6월 13일에 거론한 셋은 모두 한글본 여행기일 듯하며, 25일에 거론한 책은 거문고 악보집이다. 이미 사라진 1963년 일기의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병기는 이 4책을 기증 도서에서 제외했으리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연행일기’는 『서목』에 ‘보통본-자부-559’로 등록된 김창업의 『연행일기』(가람古915.2-G415g)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3책은 『서목』에도 올라 있지 않고 ‘가람문고’에도 포함되지 않은 듯하다.¹³⁾

『서목』에 오른 문헌이 실제 어떤 책인지 확인하게 되면, 『가람일기』와

서는 간행 연대 등에 대한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이 통계를 통해서만 대략적인 상황만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13) ‘금보’는 현재 국립국악원 소장본인 『삼죽금보(三竹琴譜)』로 추정된다. 국립국악원에서는 “1963년 국문학자 이병기(李秉岐)가 광복 이전에 안국동의 한 지물포에서 발굴되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해 국립국악원에서 원본을 입수하여 소장하였고, 현재는 원본 명 그대로 ‘琴譜’라는 서명으로 소장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1963년에 이 책을 국립국악원에 판 듯하다.

문헌 자체를 통해 ‘전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야 한다. 『가람일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가람이 값을 치르고 사들인 전사본을 이병기가 만든 전사본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가람일기』가 모든 장서에 관한 정보 일체를 기록한 책은 아니니, 일부 구절만 보고서 전사 과정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한경지략』(가람古915.11-Y9h-v.1-2)을 들 수 있다. 『서목』 ‘보통본-자부-255’에 오른 이 책은 외관상으로는 가람문고의 전사본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람일기』를 보면 송신용이 직접 혹은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만든 전사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기에서는 1937년 5월 23일에 권덕규로부터 얻었다고 기록했고, 6월 8일에 그 저자가 이조목이 아닌 유본예임을 고증했다. 책의 서문 뒤에 써놓은 송신용의 저자 고증을 반박한 것인데, 실제 책에도 해당 부분을 고쳐 놓았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송신용이 가지고 있던 전사본을 권덕규를 통해 구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후자의 사례로는 『삼한습유』(가람古920.7-G425s)를 살펴볼 만하다. 일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33.7.12.] 김화진(金龔鎭) 군이 『삼한습유』를 가지고 왔다.¹⁴⁾

[1933.7.13.] 김화진 군이 오다. 『삼한습유』를 벗겨 달라고 백지(白紙) 두 권을 사 주었다.¹⁵⁾

[1933.8.10.] 김화진 군이 오다. 『삼한습유』를 다 등사(謄寫)해 가조다. 6원을 주었다.¹⁶⁾

이병기는 김화진이 가져온 『삼한습유』를 열람하고 관심을 보인다. 매입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았던지, 종이를 사 주며 베껴주기를 요청한다. 한 달 정도 뒤에 김화진은 전사본을 주고 6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전사본을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 필사자는 김화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계유년(1933) 음력 6월 하순에 김병

14) 『가람일기』 4, 177면. 이하에서 『가람일기』의 인용은 전집본을 기준으로 하되, [연.월.일]의 방식으로 날짜를 밝히고 전집본의 권수 및 면수를 표기한다.

15) 『가람일기』 4, 177면.

16) 『가람일기』 4, 182면.

업이 쓰다(癸酉季夏下浣金炳業抄)”라는 필사기가 남아 있다. 서적상 역할을 하던 김화진은 고객을 위해 적당한 필사자를 구해서 전사본을 만드는 일까지 한 것이다.¹⁷⁾ ‘전사’의 과정은 ‘원본 확보-필사자 확정-필사-원본 반환-제책’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일기에 이 과정 전체가 드러나는 일은 드무니 일부 기록으로 전체 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빠진 부분을 필사로 채우는 ‘보사(補寫)’도 때로는 ‘전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본에서 이를 확인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필사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일부 낙장을 새로 써서 채운 경우는 더욱 그러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는 전사본 통계에 넣지 않기로 한다. 다만 낙질본 일부를 새로 만든 필사본으로 대체하는 보사본의 경우에는, 그 경위를 일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때 ‘전사본’에 넣기로 한다.

낙장을 필사하여 채운 사례이기는 하지만, ‘남명집’ 즉 『영가대사증도가 남명천선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繼頌)』(가람古貴294.315-Se46y-v.1-2)의 보사 과정은 일기에 상세히 나타나 있어서 살펴볼 만하다. 이병기는 1930년에 김낙순으로부터 상권을 얻었고, 1938년에 권상로로부터 하권을 얻었는데 낙장이 많았던 듯하다. 이에 이병기는 권상로를 통해 불전(佛尊) 즉 중앙불교전문학교 소장본을 빌려서 빠진 부분을 필사하는데, 이 일은 1938년 8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어진다. 그래도 마무리하지 못해서인지 12월 28일에는 한충에게 18장을 맡긴다. 1939년 1월 30일에 불전에 책을 반납하니, 이 무렵에 보사를 마쳤을 것이다. 이 책은 이병기의 장서를 대표하는 귀중본으로 자주 언급되곤 했는데, 원본 이미지를 보면 보사 또한 모사에 가까울 정도로 정밀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서목』에서 전사본으로 짐작되는 문헌을 선별하고 『가람일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의 기록을 통해 전사 과정을 정리하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는 가람이 직접 관여하여 만들었거나 그러리라고 짐작되는 전사본

17) 서적상 김화진과 전문적인 필사자 김병업은 『가람일기』에 여러 차례 언급된다. 두 사람은 함께 이병기를 방문하기도 하며(1933.8.15.), 이병기가 김병업을 찾아 물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통해 주기도 한다(1933.12.23./1934.5.18.). 김화진은 한국전쟁 중에 이병기의 여산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18) 건책(표제: 증도가)과 곤책(표제: 남명집)이 모두 을해자본이다. 곤책 가운데 1~24엽, 60~77엽, 발문 3엽을 보사했는데, 매헌 한충이 60~77엽의 18장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 한정된 것이며, 낙장을 채운 보사본과 같은 사례는 제외했다.¹⁹⁾ 또한 원고지 등의 양지에 펜 또는 만년필로 쓴 책이나 유인본 등은 서명 앞에 ‘△’를 붙여 표시해 두었으며, 서명이나 필사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에 밝혀둔다. ‘번호’는 『서목』에서 붙인 것인데, 중복과 누락이 있으나 원본대로 옮겼다.

구분	번호	서명(書名)	책수	청구기호	『가람일기』 등의 관련 기록
회 귀 본	86	일동장유가	4	가람古811.05-G42i-v.1-4	1934년, 송신용 원본-한충 필사 ²⁰⁾
	87	청구야담(1)	19	가람古813.08-C422y-v.1-19	1934년, 多田 전달-김연익 필사 ²¹⁾
	88	안릉일기 ²²⁾	3	가람古951.053-Im7-v.1-3	1940년, 홍택주 원본-이영재 필사
	90	물명고	2	가람古031-Y91g	1932년, 권덕규 원본-‘송서방’ 필사
	91	속약가사(1)	1	가람古811.05-So24g	1932년, 가람, 이능화 교준*
	99	금옥총부	1	가람古811.05-An1g	1936~1937년, 황의돈 원본
	100	삼죽사류	1	가람古811.04-J568s	1938년, 가람 교준
	106	협률대성	1	가람古781.751-H995	1934년, 이근우 원본-김병업 필사
	107	광재물보	4	가람古031-G994-v.1-4	1933년, 권덕규 원본-가람 교준
	121	속약가사(2)	1	가람古811.05-So24	1933년, 한충 필사-오세창 제첩
	126	△아악부가집	4	가람 781.751 Aa1	1954년, 송병초 등사(골필/탄산지)
	127	신오위장본집	6	가람古781.751-Si61s	1932~1956년, 필사자 다수
	142	청운잡총	1	가람古813.5-C422c	1933~1934년, 多田(上野帝國圖書館)
	154	관서악부	1	가람古811.05-G994a	1933년, 유길상 필사
	160	해동이적	1	가람 951 H758h	1933년, 김화진 백지 받음
	162	영남악부	1	가람古811.05-Y56y	1934년, 종로도서관 열람
	163	호남악부 ²³⁾	1	가람 811.05 Y97g	1949년, 가람 교준
	176	낙하생고	1	가람古819.55-Y56n	1933년, 권덕규 원본
183	범우고	1	가람古294.3551-B45	1940년, 가람-이영재(11장) 필사	
184	고려사(89책) ²⁴⁾	4	가람古951.04-J464ga	1955년, 장지태와 이병도에 요청	
사부	233	동국여지비고	2	가람古915.1-D717-v.1-2	1955년, 이병도 전달 ²⁵⁾
자 부	237	명엽지혜	1	가람古813.53-H758m	1933년, 이은상 전달
	238	고금소총	1	가람古817.08-G557	1933년, 정계섭 필사
	247	△청구야담(2)	3	가람古813.08-C422-v.1-3	*1934년, 이재철 필사(?)

19) 『금석과안록』(가람古411.7-G421g, 회귀본-161)은 전사본으로 추정되지만, 이병기가 전사 과정에 참여했으리라는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여기서는 제외한다.

251	해동악부(1) ²⁶⁾	1	가람古811.05-Y67ha	1934년, 경성제대 도서관 대출
252	응제시	1	가람古811.51-G995e	1937~1938년, 대출(연희, 보성). 1938년, 가람 교준
257	삼한시귀감	1	가람古811.3-J569s	1933년, 정계섭 필사
258	졸고천백	1	가람古819.4-C453j	1933년, 多田 전달
259	삼한습유	1	가람古920.7-G425s	1933년, 김화진 전달-김병업 필사
260	해동문헌총록	1	가람古015.51-H118	1933년, 정계섭 필사
261	△자경지함홍일기	1	가람 818 J189h	*원고지/만년필 ²⁷⁾
262	△동아휘집	8	가람古813.08-Y66d-v.1-8	1934년, 정계섭 필사(유인본)
264 -3	양화소록	1	가람古635.9-G154y	1933년(필사기)
265 -2	해동악부(2)	2	가람古811.05-Y51h	1932년, 종로도서관에서 대출
266	소화시평	2	가람古811.09-H758s-v.1-2	1933년, 권덕규 원본-김연익 필사
300	누판고	3	가람古015.51-Se61n	1932년, 정계섭 필사
308	화시 ²⁸⁾	1	가람古813.53-Im1s	1934년, 권덕규 원본-이재철 필사
358	△시율	1	가람古811.03-H991s	1944년, 가람 필사(원고지/만년필)
387	두시언해(10책) ²⁹⁾	1.5	가람古895.11-D85b-v.1-10	*1925년~1928년
430	응골방(鷹鵠方)	1	가람古615.135-Y58m	1930년 필사기(이병소) ³⁰⁾
435	어보(魚譜)	1	가람古639.2-J466j	1924년, 이용기 원본
437	정음[훈민정음]	1	가람古411.1-H899e	1921년, 불교회에서 필사?
448	석보상절	4	가람古811.05-Su97s	1937~1938년, 신명균 전달-이영재, 한충 필사
468	임인유사	1	가람古923.251-G415g	1941년, 가람 제책
470	△우암계녀사	1	가람古173-So58u	1934년, 김승렬 원본?(원고지/만년필)
488	소당풍속시	1	가람古811.03-G419s	1934년, 이재철 필사
489	송강가사	1	가람古811.05-J462s	1932년, 가람 필사
492	고산가사·고산유고	1	가람古819.55-Y98g-v.6	1932년, 조운 전달-가람 필사
497	부담(浮談)	1	가람 818 B858	*원고지/붓
507	△관서별곡	1	가람 811.05 B146g	1950년 필사기(경병욱 원고지/만년필)
551	△혹흥공보	1	가람 781.751 H482	1934년 이후(원고지)
553	연안김씨유훈 ³¹⁾	1	가람古811.05-Y57n	1955년, 소병돈 원본-가람 필사
561	△도문대작	1	가람 641 D714	1941년 성소부부고 열람(원고지/만년필)
573	훈민정음도해	1	가람古411.1-Si62h	1934년, 김선기 모사(模寫)
575	△해빈궁일기	1	가람 816.53 H994	1948년, 장지태 필사(원고지/펜)
617	용비어천가	1	가람 811.51 Y8ga	필사기(1916년?, 가람) ³²⁾

집 부	629	탁지준철	1	가람古336.2-T126t	1938년, 경성제대 도서관 열람
	629	시화총림	4	가람古810.82-H758s-v.1-4	1940년, 이능화가 빌려감
	698	△대동풍아 ³³⁾	1	가람 811.04 G418d	*12행 용지/만년필
	707	△가곡가사 ³⁴⁾	1	가람 811.08 G122g	1935년, *김병업 필사? 만년필?
총계		60종 118.5책(원고지 전사본 및 유인본 제외: 48종 106.5책)			

- 20) 『가람일기』에는 한층에게 첫 권의 필사를 부탁했다는 기록만 있지만, 필체를 보면 한층이 4책 전체를 필사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 21) 한글본인 『청구야담』 19책의 전사 과정에 대해서는 황재문, 앞의 논문, 134~135면 참조. 다만 1934년 7월 5일의 일기에 이재철이 『청구야담』, 『소당 풍속시』, 『화사』를 베껴서 가져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재철을 필사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4월부터 7월 사이에 3종을 모두 전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병기가 여기에 19책의 한글본을 포함하여 필사를 요청했다는 점 또한 자연스럽지는 않다. 치당 김연익에게 19책의 한글본 『청구야담』의 전사를 부탁하고 이재철에게는 3책의 한문본 『청구야담(2)』(가람古 813.08-C422-v.1-3, 자부-247)의 전사를 맡겼다고 풀이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듯하다.
- 22) 3책의 국문 필사본인 『임신평란록』이며, ‘안릉일기(安陵日記)’는 표제이다.
- 23) 1책의 필사본인 『광한루악부 일백팔첩(廣寒樓樂府一百八疊)』이며, ‘호남악부(湖南樂府)’는 표제이다. 1949년 8월 중순에 『광한루악부』(古3457-4)를 임도(臨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내용을 검토하면 <古3457-4>의 전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4) 89책의 목판본인 『고려사』(가람古951.04-J464ga)에는 총 4책(12, 32, 33, 73책)의 필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병기는 6월 27일에 장지태에게 전한 편지에서 낙질 6책의 서사(書寫) 비용을 언급했고, 12월 22일에는 이병도에게 전사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병도는 2책(32, 33책)을 보냈다.
- 25) 이병도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동국여지비고』(古4790-10-v.1-2)의 전사본을 만들어 전북대학교에 있던 이병기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 26) 1책의 필사본인 『해동악부』(가람古811.05-Y67ha)는 원래 『임하필기』 권38을 전사한 것이다. 이병기는 1934년 6월 7일에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임하필기』 6책을 빌려서 6월 22일에 반납했다.
- 27) 『국문학개설』의 ‘Ⅲ. 산문문학-5. 기행’에 <자경지 함흥일기(慈慶志咸興日記)>가 인용되어 있다. 이 부분의 집필 이전에 전사본을 만들었을 듯하다. 400자 원고지(200자 원고지×양면)에 만년필로 썼다.
- 28) 가람문고에는 한중엽(韓宗暉, 1755~?)의 장서인이 남은 1책 필사본의 『화사』(가람古 813.53-lmlh)도 있다. 『서목』에서는 돌을 합쳐 ‘필사본 2책’으로 표기한 듯하다.
- 29) ‘두시언해’는 표지에 자(子)~해(亥)를 표시한 『분류두공부시』(가람古895.11-D85b-v.1-10) 일 듯한데, 제10책(권16~18)과 제12책(권23~25)이 없는 1632년 중간본(목판본)이다. 1951년 10월 15일에 책을 정리하면서 제10책과 제12책의 2책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한국전쟁 중에 잃어버렸던 듯하다. 현재 남아 있는 책 가운데 권2~4(1책 후반 및 2책 전체)는 보사본(補寫本)이다. 두시언해의 구입, 보사, 교준은 여러 차례 이뤄지는데, 현존 10책본의 보사 시기는 1925~1928년인 듯하다.
- 30) 권말에 1930년에 다다(多田)의 요청에 따라 1930년 이병소(李秉韶)가 쓴다는 필사가 있다. 다만 이 책은 가람이 다다로부터 빌려서 원문의 필사기까지 전사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 31) 1책(13장)의 필사본인 『나부가(懶婦歌)』(가람古811.05-Y57m)에는 <나부가>, <계한가>, <연안김씨 유희>이 실려 있으며, ‘연안김씨 유희’는 표제 가운데 일부이다. 『가람일기』에는

『서목』에 제시된 나머지 분류들, 즉 잡서탑본류부, 중화민국 고서부, 양장책부, 고대잡지부에도 고문헌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본, 영인본, 현대 활자본 등이 대부분이어서 그 가운데 ‘전사본’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 이민희의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필사본은 18종에 지나지 않는다.³⁵⁾ 따라서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삼더라도, 전사본의 대략적인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³⁶⁾

이상에서 정리한 전사본의 현황을 『서목』의 분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서적 서목		보통본 서목				계
	귀중본	희귀본	경부	사부	자부	집부	
전체 종수	59	126	21	31	399	138	774
전사본 종수	0	20	0	1	36	3	60
전사본 비율	0	15.9	0	3.2	9.0	2.2	7.8

1955년 11월 19일에 익산의 중학교 교장 소병돈을 방문하여 고서회를 보았고 12월 8일에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연안김씨’는 소영규(蘇英奎, 1843~1878)의 아내로, 남편 소영규는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출신으로 36세에 객사하였다고 한다. 연안김씨는 조카에게 남기는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연안김씨 유훈>에 대해서는 조해진,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2, 38면 참조.

- 32) 『용비어천가』(가람 811.51 Y8ga)에는 “檀元四千三百七十三年, 夏休暇中, 於完山盤石里艸舍, 臨本寫此”라는 필사기가 있다. 단기 4373년은 일반적인 개국(開國) 기준으로는 2040년이지만, 단군 강세(降世) 기준으로는 1916년이다. 필사자 ‘용하초자(龍下樵者)’는 전주제이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가람 이병기로 추정된다.
- 33) 『대동풍아』는 김교현(金喬軒)이 엮은 시조집이며, 1908년 우문관에서 신활자로 간행했다. 가람문고본은 세로 12행의 용지에 옮겨쓴 전사본으로, 필사 이후 교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또 원본의 저자, 간행 연도 등의 사항은 말미에 옮겨 썼다. 원본은 상하 2권이나, 이 전사본은 1책으로 성책했다.
- 34) 『가곡가사(歌曲歌詞)』는 세로 10행의 용지에 만년필로 필사한 책인데, <고금가곡>, <여창가요록>, <가사 6종>을 수록하고 표지에도 이를 써 두었다. 이 가운데 ‘고금가곡’은 아사미린타로(淺見倫太郎) 소장본이라고 밝혀 두었다. 1935년 7월 16일에 김병업이 ‘고금가곡’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원본을 가져왔거나 완성한 전사본을 가져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35) 이민희, 『가람 이병기 소장 도서목록 『서목』 연구』, 281~282면. 잡서탑본류부(14종), 중화민국고서적부(2종), 고대잡지부(2종).
- 36)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이병기가 제책 과정에 참여한 일부 유인본(油印本)을 추가할 수도 있다. 1942년 6월에 아악부의 요청으로 책 제목 글씨를 써준 『세종악보(世宗樂譜)』와 『세조악보(世祖樂譜)』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실제 일기에는 아악부에서의 전사 기록이 적지 않는데, 『서목』에서 문헌을 특정하기 어려운 책들이 이때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서적 희귀본’과 ‘보통본 자부’의 종수와 비중이 높은 점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 둘은 상대적으로 종수가 많기도 하니, 이는 가람문고의 고문헌 구성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목』의 귀중본과 희귀본 선정은 이병기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했지만, 둘 사이의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가람일기』에서 ‘귀본(貴本)’과 ‘희본(稀本)’으로 지칭한 점을 고려하면, 각기 가치와 희소성에 초점을 둔 분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귀중본에 오래된 활자본이나 목판본이 많다면, 희귀본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헌이 많다. ‘희귀본’에서 전사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마도 전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독서 또는 연구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부’는 제자백가에 기원을 둔 분류이지만, 가람문고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시와 소설에 해당하는 문헌의 비중이 높다. 자부에 포함된 문헌의 종수가 많고 전사본의 종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문학 분야 고문헌의 비중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병기의 연구 분야와 직접 연관되는 셈이다. 요컨대 주로 고전문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문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사본 작성이 이뤄졌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III. 가람문고 전사본의 형성 과정

가람문고 전사본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전사본 현황을 다시 연대별로 정리하면, 1932년(6종), 1933년(13종), 1934년(13종)에 절반이 넘는 32종의 전사본이 작성되었다. 이병기가 평생을 교사이자 학자로 생활했던 인물임을 고려하면, 특정한 시기에 ‘고전문학 연구에 필요한 문헌’을 확보하는 전사본 작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만하다.

사실 특정한 시기에 전사본이 많이 작성된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윤지아는 1932~1934년 또는 1932~1938년에 주목하고, 휘문학교 교사 생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능력을 갖춘 필사자의 존재를 그 이유로 들었다.³⁷⁾ 그렇지만 이병기는 1924년에 휘문고보 교사 생활을 시작

했고, 1932년 무렵에 뛰어난 필사자를 만나는 우연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1932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전사본 작성이 집중되는 '1932~1934년'과 나머지 시기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1기(1931년 이전), 2기(1932~1934년), 3기(1935년 이후)의 셋으로 나뉘어서 그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앞에서 제시한 '가람문고 전사본 60종'을 필사 연도에 따라 정리해 보자. 연대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연대를 추정할 근거가 없거나 장기간에 걸쳐 보완된 문헌 4종을 '기타'로 처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기	연도	전사본(필사자)
1 (5종)	1916	용비어천가(가람)
	1921	정음[=세종어제훈민정음]
	1924	어보[=자산어보]
	1925	두시언해(보사본, 1925~1928)
	1930	응골방(이병소)?
2 (32종)	1932	물명고(송서방), 속악가사1, 해동악부2, 누판고(정계섭), 송강가사(가람), 고산가사(가람)
	1933	광재물보, 속악가사2(한충), 관서악부(유길상), 해동이적, 낙하생고, 명엽지해, 고금소총(정계섭), 삼한시귀감(정계섭), 줄고천백, 삼한습유(김병업), 해동문헌총록(정계섭), 양화소록, 소화시평(김연익)
	1934	일동장유가(한충), 청구야담1(김연익), 협률대성(김병업), 청운잡총, 영남악부, △청구야담2(이재철?), 해동악부1, △동야휘집(정계섭), 화사(이재철), △우암계녀사, 소당 풍속시(이재철), △흑홍금보?, 훈민정음도해(김선기)
3 (19종)	1935	△가곡가사(김병업)
	1937	금옥총부
	1938	삼죽사류, 응제시, 석보상절(이영재 2, 한충 2), 탁지준절
	1940	안릉일기(이영재), 범우고(가람, 이영재), 시화총람?
	1941	임인유사, △도문대작

37) 윤지아, 앞의 논문, 62~63면. 윤지아는 1932년부터 1934년까지 21종, 1932년부터 1938년까지로 확대하면 29종의 필사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특정 시기에 필사가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필사(전사본)의 목록이나 문헌별 필사자의 추정은 여기서 제시한 '전사본 현황'과 차이가 있다.

	1944	△시울(가람)
	1948	△혜빈궁일기(장지태)
	1949	호남악부
	1950	△관서별곡(정병욱)
	1954	△아악부가집(송병초)
	1955	고려사(보사본), 동국여지비고, 연안김씨유훈(나부가, 가람)
기타(4종)		신오위장본집, △자경지함홍일기, 부담, △대동풍아

1기의 전사본은 5종이다. 그렇지만 『응골방』은 1933년 이후에 작성된 전사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병기가 원본 혹은 이 전사본의 주인이었을 다다 마사토모[多田正知]와 처음 만난 시점이 1933년 4월이기 때문이다.³⁸⁾ 『두시언해』는 12책 가운데 2책이 사라졌으니, 보사본은 1.5~3.5책이 된다. 그러니 완성된 전사본은 상당히 적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병기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전사본을 만들었음은 실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기는 전주에서 보통학교 교사 생활을 하던 1915년에 추사의 필첩을 임모(臨摹)하여 스스로 필첩을 만들었던 바 있는데,³⁹⁾ 이듬해인 1916년에는 『용비어천가』(가람 811.51 Y8ga)를 전사하고 제작한 듯하다. 이 책은 현전하는 가람의 전사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하초자(龍下樵者)’가 단원(檀元) 4373년 여름 휴가 중에 완산 반석리에서 전사했다는 필사가가 남아 있다. ‘용하초자’는 전주 용화산(龍華山) 아래에 사는 사람이란 뜻일 것이며, 반석리는 이병기가 교사로 재직했던 전주제이공립보통학교가 있던 곳이다. 단기 4373년은 단군 강세(降世) 기준으로 1916년인데, 이 해의 일기에는 ‘서기 1916년’ 옆에 ‘단군(檀君) 개천(開天) 4373년’이 표기되어 있다. 한편 1916년 9월 10일의 일기에는 <용비어천가>를 개작한 듯한 ‘단군교(檀君敎)를 위하여 지은 노래’ 3수가 기록되어 있는데,⁴⁰⁾ 여름 휴가 중에 전사본을 만들고 그 직후에 이 노래를

38) 『응골방』에는 1930년에 다다(多田)의 요청에 따라 1930년 이병소(李秉韶)가 쓴다는 필사가가 있다. 이병기와 다다 마사토모의 교유에 대해서는 황재문, 앞의 논문, 154~156면 참조.

39) 1915년 7월에 임모한 글씨를 모아 ‘완당간첩(阮堂簡帖)’을 만들었다. 현재 가람문고에 남아 있는 『완당간첩(阮堂簡帖)』(가람 古 754.3-G421wa)은 당시에 만든 필첩으로 추정된다(황재문, 앞의 논문, 146면). 『서목』에서는 이 책을 ‘귀중본’에 넣었는데, 실제 추사 친필로 보이지는 않는다. 1933년의 일기에도 추사 친필의 ‘완당간첩’을 언급하는데, 이는 오세창의 제첩이 붙은 『완당선생간첩(가람古754.3-G421we)』일 것이다.

지은 셈이 된다.⁴¹⁾

이병기는 1919년 삼일운동 이후 서울로 올라가서 불교회와 대종교당을 드나들면서 다양한 문헌을 필사하는데, 『가람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 [1920.2.10.] 『인현승모덕행록』을 다 적어 맞추었다.⁴²⁾
- [1920.11.23.] 최익한, 취룡과 리의백(李宜白)의 『오계집(梧溪集)』을 난후어 백기기 비롯다.⁴³⁾
- [1921.1.31.] 오계(梧溪集, 李宜白氏) 글모이 벗기던 것은 끝을 냈다.⁴⁴⁾
- [1921.7.4.] 불교회로 가서 고산자(古山子)의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를 베꼈다.⁴⁵⁾
- [1921.7.23.] 불교회로 가서 『훈민정음』을 베꼈다.⁴⁶⁾
- [1921.10.29.] 정갑원 씨께서 정송강(鄭松江)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얻어와 베끼다.⁴⁷⁾
- [1924.8.4.] 을나(乙那) 제일도리(第一徒里)를 돌아 제이도리(第一徒里)로 들어 고성주(高性柱) 군을 찾았드니, 문어를 싸주고 김충암(金沖庵)의 『제주풍토스기』를 빌려준다.⁴⁸⁾
- [1924.8.5.] 나는 『제주풍토스기』를 벗기노라고 늦게야 잤다.⁴⁹⁾
- [1924.8.18.] 불교회에 가 놀다가 위관(韋觀)에게 『자산어보』와 『우도어보(牛島魚譜)』를 빌어왔다.⁵⁰⁾

40) 황재문, 앞의 논문, 146~147면.

41) 『용비어천가』(가람 811.51 Y8ga)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 있다. 10줄의 패선이 인쇄된 양지(全州, 田丸印刷部印行)에 썼기 때문에 고문헌으로 분류되지 않은 듯한데, 이 용지는 한문으로 쓴 초기의 『가람일기』 용지와 거의 비슷하다. 책의 크기와 표지 또한 여타의 고문헌과는 차이를 보인다.

42) 『가람일기』 2, 177면.

43) 『가람일기』 2, 324면. 전집본의 ‘係’는 ‘溪’의 오자이다.

44) 『가람일기』 2, 361면.

45) 『가람일기』 2, 429면.

46) 『가람일기』 2, 429면.

47) 『가람일기』 2, 431면.

48) 『가람일기』 3, 157면.

49) 『가람일기』 3, 159면.

50) 『가람일기』 3, 171면.

이상의 기록에서 언급된 문헌 가운데 현재 전사본이 확인되는 것은 ‘정음’(자부-437, 가람古639.2-J466j)과 ‘어보’(자부-435, 가람古411.1-H899e)의 둘이다.⁵¹⁾ 나머지 문헌, 즉 『인현승모덕행록』, 『오계집』, 『대동지지』, 『사미인곡』, 『제주풍토기』의 전사본은 현재 가람문고에는 없는 듯하다.⁵²⁾

『인현승모덕행록』은 이병기가 여산에 있던 무렵(1920.2.7.~3.10.)에 필사했으니, 어쩌면 원본의 출처는 여산 근처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원본을 얻은 이후에 전사본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 일기에서의 “적다”라는 말은 원고를 쓰기 위한 준비로 이해할 수도 있을 법하다.⁵³⁾

『오계집(梧溪集)』은 단군 또는 대종교와 관련된 문헌이다. 필사에 참여한 창해(滄海) 최익한(崔益翰)과 취농(翠農) 오철호(吳徹浩)는 불교회와 대종교 교당에서 가깝게 활동했던 인물들인데, 이들이 함께 대종교 관련 문헌을 필사한 것이다. 두 달 정도 만에 완성한 전사본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치 않으나,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권덕규에게 전달되었던 듯하다.⁵⁴⁾ 불교회에서 『(훈민)정음』을 베끼고 『우보』를 얻은 결과로 만들어진 전사본 둘은 현재 가람문고에 남아 있는데, 이로부터 불교회가 전사할 원본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미인곡』은 익산에 거주했던 정갑원에게서 얻어 베꼈고, 『제주풍토기』는 제주 여행 중에 만난 고성주(高性柱, 1880~?)로부터 얻어 베꼈다. 전사본을 만들었는지 혹은 일부만 필사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제주풍토기』의 경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한영, 권덕규와 함께 떠난 이

51) 『서목』에서는 주로 표제로 서명을 표기했으며,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목록에는 『세종어제훈민정음』과 『자산어보』로 올라 있다. 『자산어보』는 ‘자산어보’와 ‘우해이어보’를 전사한 필사본이다. 일기에는 위판 이용기로부터 빌렸다는 말만 보이지만, 전사본이 현전하므로 당시에 전사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52) 윤지아는 『인현성모덕행록』, 『오계집』, 『사미인곡』이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전사본의 소장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53) 가람문고에 있는 『인현성모덕행록』(가람古920.7-In4)은 이병기의 전사본이 아니며 내시가 궁체로 쓴 필사본이다. 이병기는 “이 글씨를 쓴 이는 궁중의 글씨 선생으로 있는 ‘名不知金知事’라는 내사인데, 때는 이제로부터 60여 년 전이라 한다.”(“60년 전의 궁체(宮體)”, 『조선일보』, 1927.10.27.)라고 언급한 바 있다.

54) 1929년 7월에 최익한의 동생 최익재가 『오계집』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가람일기』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어학회 장서 가운데 『오계선생문집(梧溪先生文集)』 하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弘益人間’, ‘崖溜藏書’, ‘조선어학회’의 장서인이 남아 있다. 앞의 둘은 권덕규의 장서인이다.

여행에서는 8월 8일에 제주를 떠났으니, 여행하면서 전체를 필사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기에 만들어진 전사본은 이병기 스스로 필사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1927년에 채태성(蔡台星)에게 『두시언해』 필사를 맡겼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치 않다. 채태성은 전문적인 필사자는 아닌 듯하니,⁵⁵⁾ 『두시언해』 보사 또한 이병기의 역할이 더 컸을 법하다. 원본을 얻은 공간은 불교회, 대종교 교당, 고향 부근, 여행지 등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희귀본을 찾아다니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2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정계섭, 김병업, 이재철과 같은 전문 필사자가 등장하고,⁵⁶⁾ 한충, 김연익, 김선기와 같은 지인들이 참여한다.⁵⁷⁾ 전사본의 종수가 특별히 늘어난다는 점은 앞서 말한 바 있는데, 1년에 6종, 13종, 13종의 문헌을 혼자서 전사할 수는 없으니 조력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사실 전사본은 적절한 필사자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작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헌, 즉 전사의 원본을 구해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기에는 불교회나 대종교 교당, 그리고 고향과 여행지에서 얻었다면, 2기에는 그 폭이 훨씬 넓어진다. 서적 중개상 송신용(일동장유가), 경성제대 교수 다다 마사토모[多田正知](청구야담, 청운잡총, 줄고천백), 종로도서관(영남약부, 해동약부2) 경성제대 도서관(해동약부1), 권덕규(물명고, 광재물보, 낙하생고) 등이 등장한다. ‘아악부’에서 열람하고 전사했다는 기록이 전하는 『국연정제창사초록』의 사례도 주목할 만한데, 이 전사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⁵⁸⁾ 송신용이나 권덕규는 이전부터

55) 『가람일기』에는 1946년에 ‘보성중 채태성’을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56) 김병업, 정계섭 등 필사자에 대한 정보는 윤지아, 앞의 논문, 69~77면 참조. 다만 함께 필사자로 언급한 유정렬은 『청구야담』을 비롯한 고문헌의 필사에 참여하지 않은 듯하며, 김화진 또한 필사자의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57) 매헌(梅軒) 한충(韓沖)은 한징의 동생이며, 1924년 무렵부터 이병기와 교유한 듯하다. 치당(耻堂) 김연익(金然翼)은 동양사학자 김상기의 부친이며, 김제 출신이어서 일찍부터 이병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무돌 김선기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병기와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국어학자이다. 한충은 ‘매화옥’의 현판과 ‘매화옥진완’의 인장을 새겨 주었고, 그의 형제인 한징, 한홍과 함께 이병기와 가깝게 지냈다.

58) [1933.10.19] “아악부를 가서 『국연정제창사초록』을 벗기다.”(『가람일기』 4, 192면). 『국연정제창사초록』은 현재 원본이 상실되고 복사본 노트에 전사한 내용만 전한다. 성무경, 『『국연

교유하던 인물이니 그들로부터 문헌을 얻는 것은 쉽게 이해할 만하지만, 경성제대나 공공도서관, 아악부 등에서 문헌을 얻는다는 것은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일 법하다.⁵⁹⁾ 그 배경에는 이전보다 넓어진 이병기의 교유관계와 활동의 폭이 있을 것이다.

이병기는 1931년 조선사편수회의 사진 촬영을 위해 책을 빌려준 이후 일본인 교수들과 문헌을 매개로 교류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1934년에는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鄰]의 도움을 받아 경성제대 도서관 특별열람권을 얻게 된다. 경성제대 예과 교수 다다 마사토모[多田正知]와는 1933년 4월에서 1934년 12월까지 교유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헌과 자료를 주고받게 된다.⁶⁰⁾

물론 한국인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넓어졌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34년 5월에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대학에 소속된 학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보다 앞서 1933년 1월에는 ‘조선문흥회(朝鮮文興會)’를 결성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한다. 조선문흥회는 1933년 1월 11일에 창립하여 8월 18일 무렵까지 유지되었는데, 이병기, 장지영, 권덕규가 창립을 주도하고 세 사람과 함께 이증화, 김교신, 방영태, 권상로, 김극배, 최선익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⁶¹⁾ 조선문흥회에서는 ‘문헌 수집, 도서 출판, 강습회 개최, 잡지 발행 등’을 사업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문헌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흥회가 유지되는 동안의 일기에서 이병기가 빈번하게 문흥회에 출석한다는 점, 그리고 출판, 강습회, 잡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문헌 수집’이 핵심적인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권덕규가 3종의 전사 원본을 제공했던 이유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문흥회에서 어떤 식으로 ‘문헌 수집’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음

정제창사초록』을 통해 본 고종조(高宗朝) 연향악장(宴饗樂章) 정비(整備),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313~314면 참조.

59) 아악부에서 자료나 문헌을 얻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어떤 책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그것이 전사본 작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928.5.22.] 아악부(雅樂部)에 가서 고가(古歌)를 벗겨오다; [1929.7.24.] 아악부에 가서 김천홍(金千興) 군에게 4원을 주고 유직렬(柳直烈)에게 『가곡원류(歌曲源流)』 초본(草本)을 사다 달라고 하였다; [1929.7.25.] 오전 8시 아악부 문 앞에 가서 김천홍(金千興) 군에게 『가곡원류(歌曲源流)』 초본(草本)을 받았다.

60) 이병기와 일본인 학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황재문, 앞의 논문, 153~156면 참조.

61) 조선문흥회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151~152면 참조.

은 『속악가사』 전사본 작성을 위해 분투하던 시점이자 문흥회가 창립된 직후의 기록인데, 여기서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1933.1.22.] 문흥회(文興會)에 가, 『속악가사』 한 권을 애류(崖溜)를 주었다.⁶²⁾

문고본 『가람일기』에는 제외될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록이지만, 당시 이병기가 ‘이왕직 장서 『악장가사』’를 열람하여 자신의 전사본을 교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 있다. 1932년 8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은 현재 가람문고에 있는 2종의 『속악가사』가 만들어진 유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⁶³⁾ 애류 권덕규에게 한 권을 주었다고 했으니 또 하나의 ‘한 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기 내용과 함께 현존하는 이본 관계를 더 따져보아야 할 듯하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권덕규에게 희귀본일 수 있는 『속악가사』를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장소가 조선문흥회라면, 조선문흥회의 ‘문헌 수집’이란 고문헌을 사고파는 것보다는 전사본 등을 통해 고문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기에 만들어진 전사본에는 한지에 붓으로 필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가운데 하나인 『동야회집』의 사례에서는 전사본 이후의 고문헌 획득 방법을 엿볼 수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33.9.29.] 정계섭(鄭啓燮)을 찾아보고 장지영(張志暎) 군의 부탁하는 일을 말했더니 소료(所料)가 적다고 작과(作罷)하였다.⁶⁴⁾

[1933.10.2.] 정계섭을 가 보고 서역(書役)을 맡기다.⁶⁵⁾

[1934.9.13.] 『동야회집』 제15, 16권 1책을 정계섭 씨에게 보내 주다.⁶⁶⁾

[1934.10.2.] 저녁에 옥천동(玉泉洞) 장지영 군을 가 보고 『동야회집』 제8권 등

62) 『가람일기』 4, 151면.

63) 윤지아, 앞의 논문, 72~74면. 다만 매헌 한충에게 필사를 맡기게 된 계기로 『속악가사』 전사를 거론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64) 『가람일기』 4, 188~189면.

65) 『가람일기』 4, 189면.

66) 『가람일기』 4, 236면.

사지(謄寫紙)를 주고 7원 20전을 찾다.⁶⁷⁾

1년여의 간격을 두고 나타난 기록이어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가람문고에 8책의 등사본 『동야회집』(가람古813.08-Y66d-v.1-8)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유래에 관해 몇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람문고본 『동야회집』은 제1책에서 제7책까지는 각기 1권을 수록하고 제8책에서는 권15와 권16을 수록한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그 글씨체는 정계섭의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동야회집』 제15, 16권 1책”이란 현재 가람문고본 제8책의 원본이 될 수 있으며, 이병기가 장지영에게 등사지를 준 것은 정계섭이 필사를 마친 등사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 1년 전의 일로 돌아가 본다면, 정계섭이 처음에는 장지영이 맡긴 일을 거절했다가 며칠 뒤에 수락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풀이할 수 있으니, 이 일이란 『동야회집』 제1책~7책을 필사하는 일이었을 법하다. 가람문고본 『동야회집』 전체의 필체가 거의 같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조선문흥회의 모임이 끝난 이후의 일이지만, 핵심 인물이었던 이병기, 권덕규, 장지영은 이러한 ‘문헌 수집’을 지속했을 법도 하다.

3기에는 19종에 이르는 전사본을 만든다. 그렇지만 1938년과 1940년을 제외하면 한두 편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한지에 붓으로 필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 사례는 드물어진다. 물론 원본의 모양을 그대로 베끼듯이 옮기는 모사본(模寫本)에 가까운 『석보상절』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⁶⁸⁾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직전에 새로운 문헌이 발굴되었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본 또는 사진에 가까운 복본으로 소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945년 이후로는 전문적인 필사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데,⁶⁹⁾ 그 원인은 전사본이 필요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사본이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전사

67) 『가람일기』 4, 239면.

68) 『석보상절』(가람古811.05-Su97s)은 상당히 정교하게 필사한 책인데, 그 가운데 매헌 한층이 전사한 2책은 특히 정밀하다. 이병기 또한 따로 장황을 부탁할 정도로 중시한 듯하며, 뒷날 1962년의 『동야일보』 기사에서는 “藏書의 恫慾을 그대로 나타냄인가! 그 雅麗快哉다. 悠悠 寫書三昧의 境地를 엿보는 것 같고.”라고 칭송한 바도 있다.

69) 은사를 위해 썼다는 필사기를 붙인 『관서별곡』(가람 811.05 B146g)의 사례가 ‘전사본의 새로운 용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줄어들었으리라는 점인데, 조선문흥회 활동 이후에 이병기가 새롭게 관계를 맺는 고문헌 소장자나 기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경성제대에 있던 이인영과의 교류를 들 수도 있지만, 이인영과는 주로 활자본과 관련된 서지적인 문제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다. 그런 경우에는 전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전사본 작성이 점차 불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인데, 영인이나 촬영 등과 같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보급되기 때문이다. 실제 3기의 일기에는 영인본을 산 일이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몇 부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인본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날이라면 복사를 활용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사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사본’이 『아악부가집』이다.

[1954.9.22.] 대구사대(大丘師大) 이재수(李在秀) 군이 『이조 악제 원류(李朝樂制源流)』와 초출(抄出)할 원고지 등을 보냈다.⁷⁰⁾

[1954.9.26.] 송병초(宋炳樵) 군이 왔다. 대구(大丘)서 온 등초(騰抄)할 종이 천 장, 골필(骨筆) 두 개, 탄산지(紙) 50장과 『아악부가집(雅樂部歌集)』 4책을 주고 뺐기라 하였다.⁷¹⁾

[1955.3.5.] 경북대학교 김사엽, 사대(師大) 이재수 군께 편지하고 채수 군께는 『아악가사집[아악부가집]』 사본(寫本) 3부(部)를 우송(郵送)하였고.⁷²⁾

이재수는 1954년 8월 24일~28일에 이병기를 방문하여 국문학을 문의하고 필기를 한다. 그리고 9월에 대구에서 발간된 책을 보내는데, 곧 함화진(咸和鎭)이 편찬한 등사본 『이조악제원류(李朝樂制源流)』(대건고등학교, 1954)이다. 그리고 원고지 등을 보낸다. 이병기는 전북대학교의 본부 주사 송병초(宋炳樵)에게 『아악부가집』 4책의 필사를 맡기는데, 그 도구로 골필과 탄산지를 주었다. 이듬해 3월에 3부를 우송했으니, 이재수는 거의 같은 책 3부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 가람문고에는 4책의 『아악부가집』(가람

70) 『가람일기』 5, 512면.

71) 『가람일기』 5, 512면.

72) 『가람일기』 5, 539면.

781.751 Aa1)이 소장되어 있고, 경북대학교에는 이와 거의 같은 책 2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경북대본에 대해서는 “서울대본의 조분과는 다른 이본을 전사”하였으며, “3명이 동시에 전사(轉寫)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3부 이상 만든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⁷³⁾ 송병초가 필사를 맡았던 책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법하다. 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실물 비교 등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전사본으로서의 등사본이 이전의 전사본을 대신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학자 이병기가 활동했던 시대의 환경은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다. 복사기도 없고 사진기도 없으며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도 없었던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컴퓨터도 없고 펜도 없이 붓과 한지를 상대해야 하는 시대로 간다면, 손쉽게 고문헌 자료를 얻고 편집하거나 필기도 구 없이도 글을 쓰는 데 익숙한 오늘날의 학자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할지 모른다. 가람문고의 전사본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옛 시대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런 전사본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전란을 거치면서 원본이 사라진 결과로 유일본이거나 희귀본으로 인정될 만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사본의 존재는 이병기를 비롯한 당대 학계가 어떤 자료나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사본을 만든다는 것은, 곧 그 문헌 또는 그 내용이 보존하거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가람일기』, 『서목』, 그리고 가람문고의 문헌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가람문고의 전사본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모두 60종을 전사본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다만 60종이라는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여기서 다시 밝혀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가람일기』나 『서

73) 김석배, 『경북대본 『아악부가집』 연구』,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2006.

목』이 상당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서 장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기록 전후의 맥락을 세밀하게 살피고 여러 곳에 소장된 이본들을 대조하면서 하나씩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가람문고의 전사본이 형성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유의하여 검토했는데, 특정한 시기에 전사본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해당 시점 이병기의 활동으로부터 찾아보았다. 여기서는 경성제대와의 관계와 조선문헌회의 활동이라는 문제를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논의할 수 있었지만,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연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가람문고 전사본 전반의 형성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에 전사본에 속하는 문헌 각각의 의의나 유래, 변화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한국문학 연구사의 관점에서는 개별 문헌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이병기의 시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학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문헌 가운데 하나인 『신오위장본집』의 형성 과정이나 ‘전사’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정리하여 완성했을 『근조내간선』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들은 특정한 문헌을 옮기는 전사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리라 추정되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향후 고전 주해 및 번역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이병기 저,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위원회 편, 『가람 이병기 전집』,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2024.

2. 단행본

천혜봉, 『한국서지학』(개정증보 2판), 민음사, 2006.

3. 논문

김석배, 『경북대본 『아악부가집』 연구』,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2006, 185~212면.

성무경, 『국연정재장사초록』을 통해 본 고종조(高宗朝) 연향악장(宴饗樂章) 정비,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311~345면.

윤지아,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문헌 필사와 필사자의 존재 양상 연구』, 『고전과 해석』 24,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55~82면.

이경애,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국어문학회, 2017, 243~279면.

_____, 『‘가람문고’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한 가람 이병기 학문의 의의: 규장각 소장 ‘가람문고’를 중심으로』, 『규장각』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283~314면.

이민영, 『서지학자로서의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발표논문집』, 2013, 13~23면.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93~227면.

_____, 『가람 이병기 소장 도서목록 『서목』 연구』, 『영남학』 6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8, 271~312면.

_____, 『근대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 전집본 『가람일기』(전5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9, 한국문학회, 2025, 131~173면.

조혜진,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황재문, 『이병기의 수학과 학술 활동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41, 진단학회, 2023, 129~161면.

The current status and formation process of Transcripts in the Garammungo

Hwang, Jae-moon

Garam Yi Byeong-gi is widely known as a scholar and poet, but he was also a prominent bibliophile of the early modern era. He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most prominent bibliophiles, especially among scholars who are not professional booksellers. His collection, dona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naged as the Garammungo, includes a significant number of transcripts. The creation of them was a powerful method for scholars to acquire literary materials at the time, and today, they serve as an important source of alternative texts. The transcripts in the Garammungo can be identified through cross-references between the *Garam Ilgi*(Diary of Yi Byeong-gi) and the *Seomok*(Bibliographic list) and existing transcripts itself. As a result of the actual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118.5 copies of 60 titles exist. Furthermore, an examination of the time periods during which these 60 transcripts were created revealed that 32 of them were created between 1932 and 1934. This period corresponds to the period in which Yi Byeong-gi broadened the scope of his scholarly network. By forging academic relationships with Japanese scholars affiliated with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other institutions, he obtained special access to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Furthermore, by participating as a founding member of the Chindan Society, he also developed connections within university-centered academic circles. Notably, in 1933, he founded and spearheaded the Joseon Munheunghoe, which prioritized literature collection. The increased number of transcriptions produced between 1932 and 1934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is society. This marked a distinction from the earlier period, when he transcribed documents he had acquired by chance, or from the later period, when the role of transcriptions diminished.

Keywords: Yi Byeong-gi, Garammungo, *Gwan Ilgi*, Seomok, Transcript

접수일자: 2025. 9. 30.

심사기간: 2025. 10. 1. ~ 2025. 11. 10.

게재결정: 2025. 11. 10.

